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희망, 햇빛과 바람

자치CEO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은 2018년 필자가 민선 7기 군수로 취임할 당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였고 재정자립도도 6%에 불과했다.

주력산업인 염전의 소득률은 떨어져 가고, 서울시의 22배 달하는 공간을 관리할 여력도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기반 삼아 폐염전과 유향부지, 광활한 바다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고, 재정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고민했다.

군수 취임 1개월만인 2018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표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중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나누는 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골자였다. 곧바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반대는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 발전

사업자의 반발, 국지적인 반대 여론, 산발적인 주민 집회, 거기에 감사원의 감사까지 더해지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도입이 쉽지 않았다.

섬을 순회하며 수차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등 소통을 확대하며, 다각도로 차분히 준비해 나갔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는 '개선권고'에 그친 처분으로 감사를 종결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에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사업자는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2021년 4월 자라도에서 우리 군 최초의 햇빛연금이 지급되고, 지난해까지 지도·사육도·안좌도·자라도·임자도·비금도 6개 섬에 군민의 36%인 1만 4천명에게 지급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에는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올해에는 연 1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역농협과 협업으로 연리 7.5% '햇빛아동 장학 적금'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햇빛을 넘어 바다바람을 통한 소득 창출도 추진중에 있다. 자은도 앞바다 해

상풍력 단지를 비롯해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8.2기가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올 연내 바람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햇빛연금이 시행되며 햇빛연금이 지급되는 6개 지역에서 매년 500~6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군 인구도 23년 179명, 24년 136명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을 만큼 햇빛연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회복탄력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 맞춘 이러한 정책이 우리 군이 지난해 리브컴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한 주요 평가 포인트로 작용했다.

이런 성과 위에 우리 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에 더 공고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세를 신설하고, 분산 에너지특구에 대해 전기요금과 망 이용료를 감면 하는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햇빛'과 '바람'을 자원으로 인구를 늘리고, 지역소멸을 해결하고, 미래 지속가능성까지 높여가고 있는 정책 사례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지향하는 신안군의 혁신성을 상징한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들에도 우리 군 사례가 좋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기고 | 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남도 지역학'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학이란 지역의 인문·사회·자연환경·문화·경제·지리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지역민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연구하고 확장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고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한다. 더 나아가 지역학을 활용한 정책 개발과 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역학도, 전남도 지역학 연구도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개별 연구자나 기관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지역학에 주목하며 '미국 지역학'을 발전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독립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했다. '미국학'이 국가 주도의 성격을 띠었다면, '미국 지역학'은 미국인의 뿌리를 찾는 근본적인 학문으로 정착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학은 역사가 짧고 연구방법과 대상에 대한 합의도 부족해 여전히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남도 지역학 연구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라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도만이 가진 특별한 인문·사회·자연환경 등을 연구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학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자료 발굴, 수집, 조사, 보전하며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전남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역학 연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도서 발간, 전문 인력 양성, 학술대회 개최 등을 위한 입법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순 연구 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가 정착된다면, 전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적·사회적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 지역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남만의 지역학을 발전시켜야 할 때다.

전남도는 향토사, 역사적 사건, 자연환경, 사회적 변화 등 고유한 가치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전남도의 자산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문화와 역사, 경제적 특성을 정리·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은 지역의 뿌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남도 지역학이 정립된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남도 지역학은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며,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남도의 지역학이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사기, 학대, 절도 등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후 회복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 대상 범죄로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학대 및 방임, 절도 및 강도 범죄가 있다. 노인은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취약해 경제적

노인 대상 범죄 증가... 사회적 관심·보호 필요할때

의 표적이 되기 쉽다.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의 확대이다. 경찰청, 지자체,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노인 학대 대처법 등을 교육하여 노인의 범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신고체계 개선 및 적극적인 피해 지원이다. 노인 학대나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창구 운영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법적 보호 강화 및 처벌 강

화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요양 시설 내 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노인 대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되며, 지금의 고령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경찰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인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닐까?

양성빈 <보성경찰 경무계 순경>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